

#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홍직\*

Determinants of Health among Korean Adolescents

Hong-Jik Lee\*

요 약

본 연구는 제 5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를 토대로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 사회학적 특성요인과 이들의 일탈행동요인을 통해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인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일탈행동요인, 그리고 종속변수인 건강에 대한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 통계분석과 각 독립변인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t-검증과 F-검증 분석, 그리고 각 독립변인이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학적 특성 요인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양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 가계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에,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에, 학업성적이 높은 경우에, 일탈행동요인에 있어서는 인터넷 중독이 아닌 경우에, 문제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 보호 및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explore the determinants of health of the youth in Korea. Especially, it explored how the soci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delinquent behaviors factors of the Korean youth affect their health. This study used the 2009 Korean Youth Health Risk Behavior On-line Survey for this purpose. It selected 35,668 cases of senior high school students from the raw data and conducted a secondary data analysis. This study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t-test, F-test, and regression analysis. Gender, living with parents, economic status, school type, academic record, internet addiction, problem drinking, drug use were significantly determinants of the health of the youth. Findings may be used for improving health of the Korean youth.

## 키워드

Korean Senior High School Students, Health,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Delinquent Behaviors  
청소년, 건강, 인구사회학적 특성, 일탈행동

## 1. 서 론

청소년기는 심리, 사회적으로 왕성한 변화를 경험하며 생활습관이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대한 태도가 발달되는 시기이다[1]-[12]. 이렇듯 청소년기의

생활습관이나 건강에 대한 태도는 비단 청소년기 뿐 아니라 인간의 전 생애주기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국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치관, 정체성의 혼돈, 과열된 학업경쟁, 가족, 친구를 비롯한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를 접하게 되며, 이들의 청소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hongjiklee@kangnam.ac.kr)  
접수일자 : 2013. 09. 17

심사(수정)일자 : 2013. 11. 25

게재확정일자 : 2013. 12. 16

년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과도한 인터넷 사용, 음주, 흡연, 불법적인 약물사용 등의 유혹에 빠지곤 한다[2],[3],[5],[7],[8].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비행행동들이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파생시키고, 오히려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비행요인을 통해 규명하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2.1 연구자료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2009년도 9월에 질병관리본부에 의해 수집된 제 5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자료 중 고등학생의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조사자료는 본 연구의 대상자인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일탈행동요인, 건강에 대한 문항을 담고 있는 점, 전국적인 표본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지니 본 연구분석에 활용하였다[2],[5],[7],[8].

### 2.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제 5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의 성별, 부모와의 동거 여부, 가계경제수준, 학교유형, 학업성적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터넷 중독, 문제음주, 흡연, 약물사용 등의 일탈행동을 독립변수로, 그리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신체적 건강에 대한 내용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은 본 자료를 활용한 선행연구의 조작적 정의과정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2],[5],[7],[8]. 각 변수를 소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 2.2.1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을 측정하고자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다루고 있는 청소년의 성별, 부모와의 동거여부, 가계경제수준, 학교유형, 학업성적

등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즉 성별은 남, 여로,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동거여부로, 가계경제수준은 상, 중, 하의 3단위로 학교유형은 인문계와 전문계로, 학년은 1, 2, 3학년으로, 학업성적은 상, 중, 하의 3단위로 범주화하여 측정하였다.

표 1. 변수 소개  
Table 1. Variables description

Measure	Factor	Variable	Classification		
Independent measure	Soci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actor	Gender	0 = Female 1 = Male		
		Living w/ parents	0 = No 1 = Yes		
			Economic status	1 = Low 2 = Middle 3 = High	
		Type of school		1 = Non-profession 2 = Professional	
				Grade	1 = 1st year 2 = 2rd year 3 = 3rd year
		Academic record	1 = Low 2 = Middle 3 = High		
			Delinquent behaviors factor		Internet addiction
				Problem drinking	0 = No 1 = Yes
		Smoking		0 = No 1 = Yes	
		Drug use		0 = No 1 = Yes	
Dependent measure	Health factor	Subjective physical health	5 point scale		

#### 2.2.2 일탈행동 요인

일탈행동요인은 원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여부, 문제음주여부, 흡연여부, 약물사용에 대한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우선 원 자료에서는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여부를 일상생활장애요인, 현실구분장애 요인, 긍정적 기대 및 장애요인,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요인, 일탈행동, 내성등의 6개 요인으로 파악한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 척도인 간략형K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2],[7],[8]. 이 척도는 4점 척도로 구성된 20문항으로 인터넷 중독여부를 측정한다[1]. 본 인터넷 중독 척도의 신뢰계수는 0.92

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총 80점 중 45점 이상인 경우를 인터넷 중독으로 조작화하였다. 문제음주에 있어서는 최근 12개월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음주, 홀로 음주, 절주 충고를 들은 경험, 음주 후 운전 또는 음주자와의 동승, 음주 후 기억 끊김, 음주 후 시비 여부 항목 중 2개이상 해당사항이 있으면 문제음주로 조작화하였다. 흡연여부는 최근 30일중 흡연 경험 여부를, 약물사용은 부탄가스나 본드 등의 약물을 습관적 또는 일부로 사용한 경험 여부를 이원화하여 측정하였다.

### 2.2.3 건강

본 연구에서는 원 자료에서는 측정된 주관적 신체적 건강척도를 통해 건강을 측정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매우 건강함, 건강함, 보통, 건강하지 않음, 매우 건강하지 않음의 다섯 단위로 구분하여 종속변수인 건강의 측정도구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은 경우가 건강한 것을 의미한다.

### 2.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독립변인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일탈행동요인, 그리고 종속변수인 건강에 대한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 통계분석과 각 독립변인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t-검증과 F-검증 분석, 그리고 각 독립변인이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 III.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특성

표 2는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 변수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구학적 특성요인을 살펴보면, 성별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전체 학생 중 51.68%를 차지하여, 여학생보다 더 많았으며,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있어서는 양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86.33%로 별거하는 경우보다 더 많았으며, 가계의 경제수준은 중이 47.26%, 하가 29.11%, 상이 23.63%의 순으로 많았으며, 학교유형에 있어서는 인문계가 75.26%로 전문계 학생보다 더

많았으며, 학년은 2학년이 33.99%, 1학년이 33.70%, 3학년이 32.31%의 순으로 많았으며, 학업성적은 하가 37.93%, 상이 32.94%, 중이 29.12%의 순으로 많았다.

일탈행동요인에 있어서는 인터넷 중독인 경우가 7.84% 정도였으며, 문제음주를 하는 경우가 13.24%,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가 16.37%, 약물을 사용한 경우가 1.74%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자 특성  
Table 2. Characteristics of sample

Factor	Variable	Category	Frequenc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actor	Gender	Female	17,233(48.32)
		Male	18,435(51.68)
	Living w/ parents	No	4,818(13.67)
		Yes	30,419(86.33)
	Economic status	Low	10,384(29.11)
		Middle	16,855(47.26)
		High	8,429(23.63)
	Type of school	Non-professional	26,845(75.26)
		Professional	8,823(24.74)
		1st year	12,021(33.70)
Grade	2nd year	12,124(33.99)	
	3rd year	11,523(32.31)	
	Low	13,530(37.93)	
Academic record	Middle	10,388(29.12)	
	High	11,750(32.94)	
	Internet addiction	No	32,873(92.16)
Yes		2,795(7.84)	
Delinquent behaviors factor	Problem drinking	No	30,947(86.76)
		Yes	4,721(13.24)
	Smoking	No	29,759(83.43)
Yes		5,909(16.57)	
Drug use	No	35,049(98.26)	
	Yes	619(1.74)	

### 3.2 건강수준

표 3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본 연구대상인 청소년의 건강 수준은 5.00기준 3.67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 건강 수준  
Table 3. Level of subjective physical health

Variable	M ± D
Level of subjective physical health	3.67 ± 0.87

3.3 독립변수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 수준

표 4는 t-검증과 F-검증을 통해,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과 일탈행동요인에 따른 건강 수준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인구학적 특성 요인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t=-27.67, p<.001),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t=-2.53, p<.05), 가계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에(F=301.40, p<.001), 인문계 학생의 경우에(t=8.64, p<.001), 학업성적이 높을수록(F=70.88, p<.001) 건강수준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독립변인에 따른 건강 수준  
Table 4. Level of subjective physical health according to independent variables

Factor	Variable	Category	M ± SD	t/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actor	Gender	Female	3.54 ± 0.85	-27.67***
		Male	3.79 ± 0.87	
	Living w/ parents	No	3.64 ± 0.90	-2.53*
		Yes	3.67 ± 0.87	
	Economic status	Low	3.51 ± 0.91	301.40***
		Middle	3.69 ± 0.83	
		High	3.82 ± 0.87	
	Type of school	Non-professional	3.69 ± 0.86	8.64***
		Professional	3.60 ± 0.89	
	Grade	1st year	3.67 ± 0.84	0.53
2nd year		3.67 ± 0.87		
3rd year		3.66 ± 0.92		
Academic record	Low	3.60 ± 0.90	70.88***	
	Middle	3.70 ± 0.84		
	High	3.72 ± 0.86		
Delinquent behaviors factor	Internet addiction	No	3.69 ± 0.86	17.58***
		Yes	3.39 ± 0.96	
	Problem drinking	No	3.68 ± 0.86	6.38***
		Yes	3.59 ± 0.94	
	Smoking	No	3.67 ± 0.86	1.00
		Yes	3.66 ± 0.92	
Drug use	No	3.67 ± 0.87	2.90**	
	Yes	3.57 ± 1.09		

\* p<.05, \*\*p<.01, \*\*\*p<.001

청소년의 일탈행동요인에 있어서는 인터넷 중독이 아닌 경우에(t=17.58, p<.001), 문제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t=6.38, p<.001),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t=2.90, p<.01) 이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약물사용여부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3.2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중다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음의 표 5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인구사회학적요인에 있어서는 성별, 가계경제수준, 학교유형, 학업성적 등의 변수가, 일탈행동요인에 있어서는 인터넷 중독여부, 문제음주여부, 약물사용 등의 변수가 청소년의 건강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 Determinants of subjective physical status

Variable	B	SE	Beta
Gender(male)	0.26	0.01	0.15***
Living w/ parents	0.00	0.01	0.00
Economic status	0.13	0.01	0.11***
Type of school (Non-professional)	-0.04	0.01	-0.02***
Grade	0.00	0.01	0.00
Academic record	0.02	0.01	0.02***
Internet addiction	-0.33	0.02	-0.10***
Problem drinking	-0.07	0.02	-0.03***
Smoking	-0.02	0.01	-0.01
Drug use	-0.07	0.04	-0.01*
constant	3.28	0.02	
F	177.95		
R-square	0.05		

\*p<.05, \*\*p<.01, \*\*\*p<.001

IV.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일탈행동요인이 이들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남학생인 경우에, 가계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인문계 청소년의 경우에, 성적이 좋을수록, 인터넷 중독이 아닌 경우에, 문제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청소년의 건강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여학생도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의 마련과 참여의 기회를 증진시키는 노력이 요청되어진다 하겠다.

둘째, 낮은 가계경제수준이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계의 경제수준에 무관하게 건강을 유지,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위해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문계 학교 청소년의 건강도 인문계 학교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배려와 관심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저조한 성적도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적이 정신건강뿐 아니라 청소년의 신체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한다. 즉, 성적에 무관하게 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일탈행동 요인에 있어서는 인터넷의 과다 사용, 문제 음주, 약물사용이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인터넷의 적절한 활용에 대한 교육, 음주와 약물사용의 문제점에 대한 점검, 예방 교육 및 사후 치료 등의 노력을 통해 이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13년도 강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입니다.

본 논문은 2013년 가을철 한국전자통신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 참고 문헌

- [1] Seong-Taek Kim, "A Study on Leisure Activity Type of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1 pp. 165-172, 2013.
- [2] Hyun-Sook Lee, Kwang-Sun Kim, Kwang-Hoi Kim, Gil-Woo Nam, Kyeong-Won Min, Sam-Soon Lee, Chan-Hee Jeong, Hong-Jik Lee, Ji-Hyun Park, "Relationship betwee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 and Internet Addiction and Drug Uses among Korean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6, pp. 963-969, 2013.
- [3] Kim, D. Kim, Y. Kim, S. Jang, Y. Jang, M. & Park, J.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Experience and Internet Addiction in Adolescence",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7, No. 4, pp. 937-944, 2012.
- [4] Jae-Suk Shim, Jeong-Min Seoung, Mi-Ra Lee, Seol-Kyung Song, "A Study on Adolescents' Misconceptions about Oral Health Knowledge in Some Areas",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1 pp. 181-190, 2013.
- [5] So-Youn Park, Hong-Jik Lee, "Determinants of Internet Addiction among the Korea Youth",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2, pp. 291-299, 2013.
- [6] Tae-Hee Park, Mi-Hwa Jung, Sun-Mi Jeong, Hyung-Su. Park, Chae-Yeon Han, Sun-An Hong, Si-Young You, Kyung-Rye Moon, "Association between Obesity and Physical Activity about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3, pp. 505-515, 2013.
- [7] Ji-Hyun Park, Kwang-Sun Kim, Kwang-Hoi Kim Gil-Woo Nam, Kyeong-Won Min, Sam-Soon Lee, Chan-Hee Jeong, Hyun-Sook Lee, Hong-Jik Lee, "Association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Delinquent Behaviors and Level of Stress among Korean Senior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6, pp. 971-977, 2013.
- [8] Hong-Jik Lee. Kwang-Sun Kim, Kwang-Hoi Kim Gil-Woo Nam, Kyeong-Won Min, Sam-Soon Lee, Chan-Hee Jeong, So-Youn Park, "Relationship betwee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 and Internet Addiction among Korean Adolescents and their Smoking Behaviors",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5, pp. 659-702, 2013.

- [9] Choi, J. Kim, M. "Factors Influencing Health Risk Behavior in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and Nursing, Vol. 15, No. 2, pp. 182-189, 2009.
- [10] Jinsang An, Heejung Kim,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Health Inequality in Korea",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4, No. 2. pp. 205-231, 2013.
- [11] Heui-Sug Jo, Sun-Hee Lee, "Factors Related to the Health Behavior of Rural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Rural Medicine, Vol. 25, No. 2. pp. 315-326, 2000.
- [12] Yu-kyung Ko, Il-Yong. Yoo, Kyeong-Hwa Kang, Ji-Young Lim, Min-Jeong Kim, Hyun-Jeong Yoo, "Factors Related to High-risk Health Behavior in Middle School Adolesc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and Nursing, Vol. 12, No. 3, pp. 341-350, 2006.

### 저자 소개



#### **이홍직(Hong-Jik Lee)**

2003년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졸업(Ph. D. in Social Work)

현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 관심분야 : 정보복지, 사회복지 디지털 콘텐츠